

## ■ 제3회 '부부의 날' 신체대 부부들이 사는 법

나원침 (6834) 김동주

7 광주일보 제17453호 2006년 5월 22일 월요일

### 박근혜 대표 피습 여파 경찰 '정치인 경호' 비상

경찰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나서는 등 '정치인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 신촌에서 5·31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벌이는 도중 피습을 당한 사건과 관련, 주요 정치인들의 경호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각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경찰청은 이날 공문에서 각 정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지역을 방문할 경우 주요 일정을 사전에 파악한 뒤 5~10명으로 구성된 신변 보호조를 운영, 철저한 경호작전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현재 주요 경호 대상을 갑·을·병 호로 구분해 경호 업무에 임하고 있다. '갑' 호는 ▲현직 대통령과 가족 ▲대통령 당선 확정자와 가족 등 가장 중요한 경호 대상이며, '을' 호는 ▲퇴임 후 7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 ▲대통령 선거후보자 ▲국무총리와 3부 요인 등이다. '병' 호의 경우는 갑·을 호 대상 외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가 대상이 된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당 대표나 최고위원, 후보자 간 폭력이나 테러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 '정치폭력' 범원 판례 사회적 파장 불구 관대

정치인 폭행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려왔을까? 정치 테러는 일반 폭력에 비해 파장이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내린 형량은 의외로 높지 않다.

지난 1957년 5월25일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무소속 정치인들과 함께 연 시국강연회에서 강대들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 폭력배를 진두지휘한 '정치주먹' 유지광은 징역 8개월 실형에 그쳤다.

제5공화국인 1987년 4월 일어난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방해 사건'(일명 옹골이 사건)으로 구속된 '옹골이' 김용남씨의 형량은 징역 2년6개월, 사건을 배후 주도한 이택돈 전 국회의원과 장제동 전 안기부장은 징역 1년6개월로 확정됐다.

지난 1991년 대학 강의 중이던 정원식 국무총리를 폭행한 대학생 5명의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징역 2년까지 떨어졌다.

이외 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해외 출장길에 김포공항에서 페인트를 넣은 달걀을 던진 박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임신 체험하며 ‘가족애’ 나눠요”



“여보, 내 배 어때?” 출산을 저하시대, 젊은 부부들은 임신을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한다. 구현민씨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아내 정지화씨를 위한 ‘임신 체험’을 보여주며 웃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1일 제3회 '부부의 날'을 맞이해 구현민(37·미술헌원 원장)씨는 이날 딸 출산을 앞둔 아내 정지화(33·유치원 교사)씨를 위한 특별 '체험 이벤트'를 기획했다. '하루종일 뱃속에 아기를 데리고 있으려면 얼마나 무거운가?'라는 생각에 '간접 임신 체험'을 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임신한 것처럼 옷 속에 배개를 넣고 부인 앞에 나타난 구씨는 “요즘 날씨도 더운데 많이 힘들지? 난 벌써 땀이 나네”라며 웃었다. 아내 정씨는

에 부인과 함께 병원을 가려는 짧은 예비아빠들이 늘어난 탓이다. 광주 에덴병원 박윤희 간호부장은 “쉬는 날을 이용해 손을 잡고, 병원을 찾는 짧은 부부들이 부쩍 늘었다”며 “아내의 임신과정에 동참해 기쁨과 고통을 나누려는 남편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만삭 촬영을 한 김지은(28·광주시 서구 치령동)씨는 “배가 많이 불러야 예쁘게 나온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까지 기다려 찍었다”며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더니 다른 산모들이 부러워하더라”고 만족해 했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U스튜디오 이도희씨는 “만삭 사진 촬영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배 사진이 많이 나왔고 문의전화도 종종 온다”며 “요즘 부부들은 일부러 ‘배’를 노출시키고 대담한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도 ‘임신 체험 기구’가 인기 키워드가 됐다. 미국 ‘버스웨이 제조사’가 제기된 요즘,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임신을 하나의 ‘기념할만한 행사’가 되고 있다. 아이를 돌 셋씩 낳던 예전에는 ‘임신’과 ‘육아’가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하나씩만 낳는 부부들이 늘어나며 남편들이 임신의 과정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요즘 산부인과는 오히려 주말에 발디딜 틈이 없다. 휴일

에 부인과 함께 병원을 가려는 짧은 예비아빠들이 늘어난 탓이다. 광주 에덴병원 박윤희 간호부장은 “쉬는 날을 이용해 손을 잡고, 병원을 찾는 짧은 부부들이 부쩍 늘었다”며 “아내의 임신과정에 동참해 기쁨과 고통을 나누려는 남편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만삭 촬영을 한 김지은(28·광주시 서구 치령동)씨는 “배가 많이 불러야 예쁘게 나온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까지 기다려 찍었다”며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더니 다른 산모들이 부러워하더라”고 만족해 했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U스튜디오 이도희씨는 “만삭 사진 촬영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배 사진이 많이 나왔고 문의전화도 종종 온다”며 “요즘 부부들은 일부러 ‘배’를 노출시키고 대담한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도 ‘임신 체험 기구’가 인기 키워드가 됐다. 미국 ‘버스웨이 제조사’가 제기된 요즘,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임신을 하나의 ‘기념할만한 행사’가 되고 있다. 아이를 돌 셋씩 낳던 예전에는 ‘임신’과 ‘육아’가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하나씩만 낳는 부부들이 늘어나며 남편들이 임신의 과정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요즘 산부인과는 오히려 주말에 발디딜 틈이 없다. 휴일



연예저널리스트 대주 피오레 1,300여부서 중 353명 353부서 문의 (062)366-4220

### ‘기러기 아빠’의 뒤늦은 후회

○14년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던 현직 대학 교수가 우울증 등 증세가 있는 아내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이려다가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곤욕.

○21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대학 김모 교수는 이날 자정께 자신의 아파트 방 안에서 아내에게 약을 먹이려다 감자로 먹이려다 아내의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것.

○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아내는 곧바로 112로 신고, 김 교수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

○김씨는 경찰에서 “12년 전 미국으로 조기 유학 간 어린 남매의 뒷바라지를 위해 함께 떠난 아내가 3년 전부터 극심한 항수병과 우울증에 시달려 다시 한국으로 데려왔다”면서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할 욕심에서 조기 유학을 보냈지만, 도리어 아내가 밑줄 병에 걸려버렸다”면서 후회.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대졸 노래방 도우미 자살

### “손님들이 짓궂게 군다”

올해 전대를 졸업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일 오전 7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 빌라에서 손모(여·21)씨가 발코니 천장에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남자친구 김모(32)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날 새벽 0시50분께 여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노래방 손님들이 짓궂게 군다’면

서 울먹었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 2월 광주 모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가족에게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숨기고 시내 다방에서 일했으며, 최근 노래방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님 손씨가 ▲도우미로 일하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손님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가정 문제로 괴로워했다는 주변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판,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광주 노래방 1,400여곳

▲노래방 도우미는=‘광주시 노래방협회’에 등록된 노래방(음악홀 등 제외)은 1천400여곳으로, 도우미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도우미들은 보통 오후 8시에 나와, 다음 날 새벽 3~4시에 돌아간다.

연령 층은 이혼 후 양육비를 벌기위해 나온 30~40대가 많다. 도우미 비용은 시간당 2만원으로 이중 알선책인 ‘보도방’ 측이 5천원을 갖는다. 보도방은 광주 삼부지구에만 80여곳이 밀집돼 있다.

## 상쾌한 아침 편안한 잠 폭신폭신한 “수맥돌침대” 몸이 찌뿌둥 할 때! 미국 F.D.A승인.

간수할 후기평값 감사세 받들... (text continues with testimonials and details about the bed's benefits for sleep and health).

연세대학교 최고품질인증 수상... (text continues with information about the bed's quality and awards).

온나노 특허 “수맥돌침대” 원목가구 친한길 제품...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bed's unique features and materials).



세계 대회 5차례 금메달 수상... (text continues with information about the bed's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contact details for the manufacturer).